

• 데살로니가전서 4:1-8

어느 시대에나 간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간음의 다양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신 22장).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의 주목적은 ‘결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은 신명기 22장에서 언급된 혼전 성관계나 강간 같은 사건보다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음은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성적 문란과 부도덕한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 중에도 기존 삶의 방식과 문화에 여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옛 사람과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살전 4:1-8).

현대 사회는 간음을 로맨스로 포장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한다고 해도 간음은 죄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시대착오적인 계명으로 제7계명을 꼽을 만큼 우리는 간음이 흔하디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처음 주어진 모세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제7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신앙의 표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간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잠 6:32).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여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잠 6:32-33). 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라고 경계하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히 13:4)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간음에 관한 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① ‘간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 ② 성경이 말하는 ‘간음’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